



## 하늘을 담고 사는 삶



이제훈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교목)

지난 5월 3일과 4일에 S생명보험주식회사 상장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43.42대 1의 경쟁률이 보여 주듯이 20조 가까운 뭉치돈이 몰려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흡사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따먹기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못해 다시 돌려주는 돈도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사람들이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던 돈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반가워 하면서 이 돈들을 유치하려고 각종 구미를 자극하는 신상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조 가까운 돈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 가운데 진정 S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돈을 내놓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했던 원금보다 시세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상당한 이익을 단기간에 남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슴 없이 장롱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여성 강사가 주식에 대한 특강을 하는 중에 인상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남녀가 서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약함을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결혼식 때 종종 듣는 서약문의 고백처럼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약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에도 서로를 버리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은 사랑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투기'는 남녀가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서로에 대한 책임에서는 속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태도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식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커다란 수확을 거두려 하면서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투기'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투자'가 되었건 '투기'가 되었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때 자신의 돈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기대한 것과 같은 이익을 안겨 줄 것을 소망함으로 소중한 돈을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돈이 담겨 있는 한 그 사람은 매일 신문을 받아 들 때마다 S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 동향에 촉각을 세울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은 결국 하늘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쌓아가는 것에 비례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부요하신 주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금'을 말씀하셨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하늘을 담아 놓고 싶으셨던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금생활' 괜찮으신거죠?

